



2012 년 7 월 1 일선거는 대략적으로 7 천 9 백만명의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멕시코 시간 7 월 2 일 04 시 47 분 발표에 의하면 제도 혁명당 (PRI) 페냐 니에토(EPN) 후보 37.08%, 국민 행동당 (PAN) 호세피나 바스케스(JVM) 후보 25.26%, 민주 혁명당 (PRD)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후보 32.91%로서 별다른 이변(異變)이 있지 않는 한 차기 대통령은 페냐 니에토 (EPN)후보가 될것이 기정 사실화됐다.

당선 요인을 본다면, 2012 년 7 월 멕시코 통계청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의 보고서에 의한 기준을 토대로 하여, 2010 년 인구 조사 (CPV,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멕시코의 인구는 총 112,336,538 명중에서 57,481,307 명의 여성(51.17%)과 54,855,231 명의 남성 (48.83%)이 거주하고 있는데, 멕시코 시티에 8,851,080 명 (총인구중 7.9%)이 거주하고, 멕시코주에 15,175,862 (13.5%)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러한 멕시코에서의 여성 인구의 상대적인 많음 (페냐 니에토가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이 잘생겼음)과 멕시코주에서의 멕시코 시티와 비교된 인구분포도 페냐 니에토 (EPN)의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한다. 전통적으로 멕시코 시티 (Ciudad de Mexico)는 민주 혁명당 (PRD)이 강세이고,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는 제도 혁명당 (PRI)이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통령 투표는 한치앞도 알수없었으며, 실질적인 개표까지는 누가될지 확실히 알수 없었던 요인으로선 대부분 여론 조사의 조작 가능성 및 멕시코의 평균 연령 26 세에서도 알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은 Yo soy 132 운동에서도 알수 있듯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에게는 많은 장점으로 존재하나, 멕시코의 평균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에서 고졸 (고졸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하여두고 싶다)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이 정치에

무감각하거나 실망하여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숫자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지식인층에 속한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대학 학력 수준이상의 사람들과 멕시코 시티 거주 시민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주고있으나, 시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전 (以前) 제도 혁명당 (PRI) 향수(?)를 잊지 못하는 군중들이 많아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어렵지 않았나 싶다.

한국의 경우도 이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라는 노랫말이 들어있는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향수(鄉愁)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과 한국을 어떻게 움직이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이라는 공약과 실현 가능성의 토론장이 아닌 매카시즘 (McCarthyism)으로 대표되는 색깔론 혹은 종북(從北) 타령으로 현재 한국 국민들을 현혹(眩惑) 시키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한국을 떠나왔지만 한국을 사랑하며 걱정하는 한국 국민중의 한사람인 필자의 진정한 바램이다.

다른 한가지 요인은 일반 멕시코 시민들은 2000 년 비센테 폭스정부부터 펠리페 대통령에 이르는 12 년간의 국민 행동당 (PAN)정부에 대한 실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2000 년 정권 교체에는 성공하였지만 기쁨도 잠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정부와 계속되는 마약조직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으며, 증가되는 실업자의 수와 물가의 인상, 변하지 않는 정책등은 다시 한번 국민 행동당 (PAN)에게 행정부를 넣어주면 큰일이 난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있다.

멕시코 외부에서는 이념 논리로서 중남미를 파악하려 하지만, 현재 멕시코 국내의 분위기는 좌우 이념의 세대를 떠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의가 실현되며, 카를로스 슬림 (Carlos Slim)을 포함한 일부 사람에게 집중된 부에 대한 독점을 타파하고, 부의 균형 분배가 이루어지는 각 개인마다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논리로서 사회가 흘러 가고 있다. 이러한 면에 그래도 조금 부합(符合)되는 정당이 민주 혁명당 (PRD)이었으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에 대한 외부로부터 평가되는 극단적 좌파 성향은 멕시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과 70 년동안 멕시코 행정부를 장악한 제도 혁명당 (PRI) 성향 하급 관리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업가들에게도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의 대부분 공약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많았던 점이 상대적으로는 제도 혁명당 (PRI) 페냐 니에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이다.



Gabriel Quadri



Pemex

당선된 페냐 니에토 (EPN) 대통령앞에는 교육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석유로 대표되는 천연 자원의 구조 개혁도 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덧붙이자면,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언급된 3 명의 후보들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노동자 민주 노조 위원회 (SNTE,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on) 엘바 에스테르 (EEG, Elba Ester Gordillo)에 의하여 2005 년 창당된 새로운 연맹당 (Nueva Alianza)에서도 가브리엘 콰드리 (Gabriel Quadri)후보를 내놓았는데, 지지율등이 3%미만이어서 본문에서 해당 후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도혁명당 페냐 니에토를 지지하는 정당이다), 대통령 후보 4 명의 공약을 모두 살펴본다면 모두 멕시코 국립 석유 회사 (Pemex, Petroleos mexicanos)의 구조적 개선에 대하여는 모두다 동의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12 년 현재 멕시코 석유 사정을 보면, 멕시코 정유 시설 부족에서 시작한 가솔린을 주로 한 수입에 \$112,569,200,000 USD 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 석유 생산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53%**에 해당하고 있으며, 별도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정부는 계속되는 세계적인 석유 가격의 인상이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으로 \$511,000,000,000 페소 (대략 \$380,000,000 USD)를 멕시코 소비자들 및 산업체들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Pemex 의 최근 보고서를 통하여도 알 수가 있는데, 최근 10 년간 석유 추출량은 하루 평균 367,000 배럴이며, 2000 년에서 2007 년에 걸쳐 석유 1 배럴을 추출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노후화된 석유 시추 장비 운영비, 석유 시추 장비의 가격 인상에 원인을 둔것으로 \$3.16 USD 에서 \$4.36 USD 로 17%정도 상승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석유 자원의 고갈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있다.

두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信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여론 조사를 담당하고 Latinbarometro 측의 보고서에 의하면 (www.latinbarometro.org),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국민의 62%는 법준수와 처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의 55%는 사법부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71%는 선거 부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급한 국민 신뢰 회복도 우선되어야 할 항목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앞에서 언급된 4 명의 모든 후보들이 만장 일치로 언급한 세무 제도의 개선 (改善)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본인이 이전에 단일 회사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의 헌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비평문을 한인 매일 신문에 게재(掲載)를 한 것처럼, 해당 단일 회사세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계산을 매년 단순화시킨다고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매년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인 회계사의 도움없이 세금 납부액을 알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복잡한 구성요소를 매분기마다 만들어 놓음으로서 (멕시코 공인 회계사인 필자도 계속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한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니..), 충분한 회계 인력, 법무팀들을 소유한 거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세 및 중소 사업체들의 간접적인 지하 경제 (Mercado informal)로의 유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서, 라틴 아메리카 영세 및 중소 기업 연합회(Alampyme,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Micros, Pequenos y Medianos Empresarios) 회장 알레한드로 살세도 (Alejandro Salcedo Pacheco)에 의하면, 멕시코의 거시 경제는 펠리페 칼데론 재임시절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부의 거대 국내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하여만 이익이 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증거로서 6 년간 국민 행동당 (PAN)의 행정부 집권 시절, 300,000 개의 영세 및 중소사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이는 영세 및 중소 기업들이 멕시코 전체 근로자의 70%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면에 보아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번째로는 강력 범죄등과 같은 사회 불안 요소에 대한 퇴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마약 조직과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민 행동당 (PAN) 출신 펠리페 칼데론 정부의 2006 년 12 월 11 일부터 2011 년까지말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마약 관련 사망자 47,453 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범죄 예방 민간 단체 (MUD, Mexico Unido contra la

Delincuencia)주장 사망자수 80,745 명), 이러한 꾸준하고 계속적인 사회 불안 요소와 함께 최근 2012 년 6 월 26 일 펠리페 칼테론에 의하여 연방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좋아진다고 말을 하고는 있으나, 2012 년 6 월 25 일 월요일 오전 8 시 30 분경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AICM, 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iudad de Mexico)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경찰 3 명이 사망한 사건과 동년 동월 27 일 수요일 멕시코시티에서 제일 큰 도매시장인 센트로 (Centro) 지역에서도 특히 밀매시장으로 악명높은 테피토 (Tepito)시장에서 발생한 상인들과 연방 경찰들과의 충돌에서도 알 수있듯이 아직까지도 사회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잠재(潛在)한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과의 전쟁에 관하여는 멕시코 국민들이 마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깨닫고 있으나, 뿌리 깊은 마약 조직의 거센 저항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희생자들에 대한 극악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언론에 자주 노출시킴으로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차기 제도 혁명당 (PRI) 페냐 니에토 (EPN) 행정부에서는 전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참고로, 최근 발생한 공항 총격 사건에 대하여 연방 경찰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하여 요점만 간추리자면, 발단은 2012 년 4 월 11 일 페루 출발 멕시코 도착한 수지뜨 (Suzztite Mayrobi Guaxa Barreto)라는 승객이 대략 2 kg 인 코카인을 몸에 소유하고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멕시코 국제 공항에서 격리중에 있었는데, 수지뜨의 핸드폰을 통하여, 해당 코카인은 공항 관련인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연방 경찰은 관련자들을 색출하고자 은밀히 감사를 진행하였고, 공항 연방 경찰 세페리노 (ZMF, Zeferino Morales Franco)가 2012 년 6 월 25 일 오전 7 시 30 분 페루 출발 멕시코시티 국제 공항

도착한 승객이 공항 화장실에 숨겨놓은 코카인을 찾아서 멕시코 국내에 판다는 정황을 파악한 후, 연방 경찰 호수에 (JMC, Josue Matadamas Cota)와 엔리케 (EJPV, Enrique de Jesus Pacheco Valdez)는 세페리노 (ZMF)가 코카인을 찾아서 옷속에 숨겨서 나오는 것을 쫓아가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뒤에서 접근한 동료 경찰 다니엘 (DCG, Daniel Cruz Garcia)에 의하여 호수에 (JMC)는 몸에 7 발의 총상, 엔리케는 머리에 한발을 맞고 사망하였고, 부근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경찰 피델 (FRM, Fidel Rojas Martinez)은 다니엘(DCG)과 세페리노 (ZMF)를 향하여 총성을 교환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하였으며, 해당 총격전후 두명의 경찰은 공항 공영 주차장을 통하여 탈출하여 가까운 주유소에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도주를 한 상태이며 (한명은 부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고 함),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한 두명의 경찰관의 상관인 연방 경찰 보가드 (BFLL, Bogard Felipe Lugo de Leon)도 쥘차를 타고 도주한 상태라고 하며, 현재 3 명에 대하여는 현상금 (Recompensa)으로 대략 5 백만페소 (한국돈 5 억원)가 책정되어있다.

70 년이상 집권(執權)을 하였던 보수 여당인 제도 혁명당 (PRI)이 12 년의 국민 행동당 (PAN) 집권을 종결짓고 다시 집권을 하였는데, 대선 기간중 페냐 니에토 (EPN)후보가 공언(公言)한 것처럼, 새로운 멕시코 창출을 위하여, 국민 행동당 (PAN) 및 민주 혁명당 (PRD) 후보들의 공약도 참조하여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멕시코를 만들수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멕시코 주재 한인 기업들 및 한인들에게는 멕시코 국민들이 변화 보다는 안정(?)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조금은 한시름을 덜수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섯번째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사항은 멕시코 전체 부채 (Deuda Publica)의 증가라고 할 수있는데, 계속되는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의 외국 금융 자본 시장에서의 부채 발행을 포함하여, 2012 년 6 월 29 일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발표에 의하면, 멕시코의 국채는 펠리페 칼데론 집권기간중 152%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데, 이는 멕시코 한사람당 지닌 부채가 2006 년 6 월의 \$18,958 페소 (한국돈 190 만원)에서 2012 년 5 월에 \$44,404 페소 (한국돈 4 백 4 십만원)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덧붙여서, 물가는 2012 년 기초 생활품비에 대한 가격이 2008 년에 비하여 대략 30% 상승한 반면, 멕시코의 임금은 동일 기간에 대하여 대략 1.7% 상승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즉, 사회 개발 정책 평가 민주 위원회 (Coneval, Consejo Nacional de Evaluacion de la Politica en Desarrollo Social)에 의하면, 2008 년 농촌 및 도시 기초 생활품비가 매달

각각 \$588.80 페소 (한국돈 6 만원정도), \$843 페소 (한국돈 8 만 5 천원정도)였다면, 2012 년 3 월에는 각각 \$765.10 페소 (한국돈 7 만 7 천원정도), \$1,081.20 페소 (한국돈 십일만원정도)로 상승을 한 반면, 동일 기간동안, 한사람당 임금이 \$\$1,447.7 페소 (한국돈 십사만오천원)에서 \$1,470.6 페소 (한국돈 십오만원)로 적은 수치가 상향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 본인의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멕시코 대선 2012 분석이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 대선을 이유로 단지 몇일간 멕시코에서 머물며 편협(偏狹)한 시각으로 작성된 글 혹은 영문 신문을 단순 번역한 논평보다는 멕시코 거주하며 실질적인 체감 온도를 느끼는 교포중의 한사람으로서 작성한 필자의 글을 통하여 멕시코 거주 지상사를 비롯한 한인들이 멕시코의 실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조그마한 소망이다.